World Music Group

삼인동락

SPEDIDAM
LES DROITS DES ARTISTES-INTERPRÈTES

Label QUEST

PRINTEMPS COREEN

About Music

삼인동락 트리오의 거문고와 콘트라베이스가 만들어내는 화성적 조화는 단순히 두 악기의 소리를 합치는 것을 넘어, 동양과 서양의 음악적 뿌리가 만나 새로운 차원의 감각을 선사합니다.

거문고와 콘트라베이스 화성적 조화의 구체적인 느낌과 중동타악기가 미치는 영향

1.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는 아득한 울림
거문고의 깊고 명상적인 음색은 마치 오랜 역사와 전통을 담고 있는 듯한 시간의 깊이를 느끼게 합니다. 여기에 콘트라베이스의 풍부하고 낮은 울림이 더해지면, 그 소리는 마치 땅속 깊이 박힌 뿌리처럼 든든한 기반을 형성합니다. 이 두 소리가 어우러질 때, 듣는 이는 고요한 산사의 풍경이나 드넓은 대지를 떠올리게 되며,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는 듯한 아득하고 장엄한 느낌을 받게 됩니다. 마치 과거와 현재, 동양과 서양이 하나의 음악적 공간에서 조화롭게 숨 쉬는 듯한 경험을 선사합니다.

2. 이질적인 아름다움에서 오는 신비롭고 몽환적인 감정
거문고의 선율은 주로 단선율적이고 음정 사이의 여백이 많은 반면, 콘트라베이스는 서양 음악의 화성학적 틀 안에서 화음의 기초를 다집니다. 이 두 악기가 만나면, 전통적인 국악 선율 위에 서양 재즈나 클래식에서 볼 수 있는 예상치 못한 코드가 얹혀지면서 낯설면서도 매혹적인 하모니가 만들어집니다. 이러한 이질적인 요소들의 결합은 듣는 이에게 신비롭고 몽환적인 감정을 불러일으키며, 마치 꿈속을 거니는 듯한 비현실적이면서도 아름다운 청각적 경험을 제공합니다. 이는 고전적인 미감과 현대적인 감각이 어우러진 새로운 형태의 미적 경험이라 할 수 있습니다.

3. 절제된 감정 표현 속의 깊은 서정성
거문고는 절제된 표현 안에 깊은 철학과 서정을 담고 있으며, 콘트라베이스는 그 특유의 무게감으로 감정을 과장하지 않으면서도 곡의 정서를 깊이 있게 전달합니다. 두 악기가 화성적으로 조화를 이룰 때, 감정의 과잉 없이도 진한 여운과 감동을 자아냅니다. 예를 들어, 거문고가 애절한 가락을 연주할 때 콘트라베이스가 그 뒤를 묵직하게 받쳐주면, 슬픔이나 쓸쓸함 같은 감정이 더욱 깊고 웅장하게 다가오지만, 동시에 평온하고 고요한 위로를 주는 듯한 느낌을 받게 됩니다. 이러한 절제된 아름다움은 듣는 이의 마음속에 잔잔하지만 깊은 울림을 남기며, 오랜 시간 기억될 인상 깊은 경험을 선사합니다.

4.다채로운 리듬감과 그루브 형성
중동 타악기는 삼인동락의 음악에 복잡하고 정교한 리듬 패턴을 제공하여 독특한 그루브를 형성합니다. 거문고의 전통적이고 울림 있는 소리, 콘트라베이스의 깊고 서양적인 저음과 대비되는 명료하고 날카로운 고음과 타악적 음색을 제공합니다. 이러한 음색적 대비는 음악의 질감을 더욱 풍부하게 만들고, 마치 '대화'를 하듯 각 악기가 서로에게 말을 거는 듯한 효과를 줍니다. 이를 통해 삼인동락의 음악은 단순한 연주를 넘어, 각 악기의 소리가 하나의 이야기를 만들어가는 듯한 음악적 스토리텔링을 강화합니다.

Samindongrak

삼인동락의 경계없는 사운드

삼인동락 트리오의 '경계 없는 사운드' 경험은 단순히 여러 악기를 한데 모으는 것을 넘어, 각 악기가 지닌 고유의 문화적, 음악적 특징을 존중하면서도 이를 유기적으로 엮어 새로운 청각적 지평을 열어주는 것입니다. 이는 마치 서로 다른 언어를 구사하는 이들이 하나의 주제로 깊은 대화를 나누며 새로운 의미를 창조하는 과정과 유사합니다.

1. 거문고의 선율적 확장과 콘트라베이스의 화성적 조화
삼인동락의 공연에서 거문고는 한국 전통 음악의 깊은 선율과 특유의 농현(음을 끌거나 흔드는 기법)으로 동양적인 서정성을 표현합니다. 동시에 콘트라베이스는 서양 음악의 화성적 기반 위에서 깊고 풍부한 저음을 제공하여, 거문고 선율에 서양적인 색채와 무게감을 더합니다. 예를 들어, 거문고가 전통 산조 가락을 연주할 때 콘트라베이스가 그 아래에서 재즈나 클래식 음악에서 사용되는 복잡한 보이싱으로 화성적인 뒷받침을 해주어, 동양적인 정서와 서양적인 구조가 절묘하게 어우러지는 순간을 만들어냅니다. 이는 듣는 이에게 익숙하면서도 낯선, 동시에 아름다운 '경계 없는' 감동을 선사합니다.

2. 중동 타악기의 리듬적 다양성과 장르적 유연성
중동 타악기는 곡의 전반적인 분위기를 주도하며, 복잡하면서도 역동적인 리듬 패턴으로 청중을 몰입시킵니다. 단순히 박자를 맞추는 것을 넘어, 곡의 전개에 따라 아랍 음악의 다채로운 리듬(예: 마크숨, 발라디 등)을 활용하여 예상치 못한 전환을 가져옵니다.

이는 거문고와 콘트라베이스가 자아내는 다소 정적인 분위기 속에 활력을 불어넣으며, 재즈의 즉흥 연주 요소나 록 음악의 강렬한 에너지를 연상시키는 장면을 연출하기도 합니다. 이러한 리듬적 유연성은 삼인동락의 음악이 특정 장르에 갇히지 않고 끊임없이 확장될 수 있는 원동력이 됩니다.

3. 전자 거문고를 활용한 사운드 텍스처의 혁신
전자 거문고의 도입은 '경계 없는 사운드' 경험을 극대화하는 결정적인 요소입니다. 전통 거문고의 소리에 전자 이펙트를 적용하여 앰비언트*(환경음악)*적인 공간감을 만들어내거나, 드론 사운드*(지속음)*처럼 길게 울려 퍼지게 하여 신비로운 분위기를 연출할 수 있습니다.

전통 거문고의 생생한 현 소리가 전자 거문고의 페달 효과*(딜레이, 리버브 등)*를 거쳐 마치 오케스트라 현악기처럼 풍성하게 확장되거나, 신시사이저 소리처럼 변형되어 현대적인 일렉트로니카 음악의 요소를 더합니다. 이러한 시도는 전통 악기가 가진 음향적 한계를 넘어, 현대 음악의 다양한 텍스처와 자연스럽게 융합되는 새로운 사운드 경험을 가능하게 합니다.

삼인동락 트리오가 세계 유일의 베이스 트리오로서 가지는 독특한 강점은 여러 가지 측면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이는 단순히 악기 구성의 희귀성을 넘어, 음악적 깊이와 문화적 통찰력을 동시에 제공합니다.

Meet Our Team

E'Joung-Ju - 작곡 및 거문고

이정주는 거문고 연주자이자 작곡가로, 한국 전통음악과 현대음악의 융합을 통해 독창적인 음악 세계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전라남도립국악단 창단 단원을 지냈으며, 1994년 국가무형문화재 제16호 거문고 산조 이수 자격을 취득했습니다. 한국예술종합학교에서 전문 교육을 마친 후 프랑스로 건너가 거문고의 예술적 가치를 유럽에 알리는데 기여했습니다.

그녀는 2025-2027년 SPEDIDAM 월드 뮤직 분야 8인 아티스트 중 한 명으로 선정되었고, 2025년 대한민국 무형문화재 이수자 지원사업에도 선정되었습니다. 또한, 2025년 서울 수림문화재단 공간 지원 아티스트로 선정되는 등 활발한 활동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낭트에서 '한국의 봄' 축제를 설립하고, 2015년 한불문화예술상을 수상했으며, 2023년 대한민국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상을 받는 등 다양한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이정주는 전통 산조와 민요를 기반으로 재즈 및 월드 뮤직 요소를 결합하여 모든 곡을 직접 작곡합니다. 라디오 프랑스 인터내셔널(RFI)의 의뢰로 한국인 최초로 앨범을 작곡하여 전 세계에 송출했으며, 스위스 현대무용단 Linga와의 협업, 프랑스 정부의 예술적 지원을 받으며 거문고의 독특한 소리와 예술적 가치를 전 세계에 알리고 있습니다. 그녀의 음악은 단순한 연주를 넘어 문화 간의 다리를 놓고, 관객들에게 감동적이고 깊이 있는 경험을 선사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Simon MARY-편곡 및 콘트라베이스

사이먼 마리는 콘트라베이시스트이자 작곡가로, 다양한 음악적 시도를 통해 독창적인 음악 세계를 구축하고 있는 예술가입니다. 그는 '월드 재즈' 그룹 Mukta의 리더로서 6장의 앨범을 발매하고 프랑스 클래식 및 재즈 음악상 후보에 두 차례 오르는 등 유럽에서 인정을 받았습니다. 또한, Krystal Mundi의 리더로서 재즈, 클래식, 월드 뮤직을 아우르는 활동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는 전 세계 무대에서 활발하게 활동하며 재즈, 팝, 샹송, 월드 뮤직 등 다양한 장르의 100여 개 앨범 녹음에 참여했습니다. 사이먼 마리는 현악 사중주 'Bleu d'Orient'과 같은 작품으로 작곡 능력을 인정받았으며, 여러 재즈 앙상블, 현악 오케스트라, 그리고 음악 학교를 위한 교육용 작품들을 작곡했습니다. 또한, 필립 카트린, 레일라 위소드, 알렉시스 HK 등 다양한 아티스트들의 곡을 편곡하고 작곡하며 폭넓은 음악적 스펙트럼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 2022년에는 트럼펫 연주자 조프루아 타미지에와 함께 'Naoned Memories'를 공동 작곡했으며, 이 작품은 프랑스 문화부의 지원을 받아 제작되었습니다. 나이삼 잘랄, 신시아 아브라함, 브랜디 영거 등 세계적인 아티스트들과 협업하여 완성된 이 작품은 사이먼 마리가 현대 음악의 거장으로서 다양한 장르의 경계를 허물고 혁신적인 음악을 만들어가는 데 헌신하고 있음을 잘 보여줍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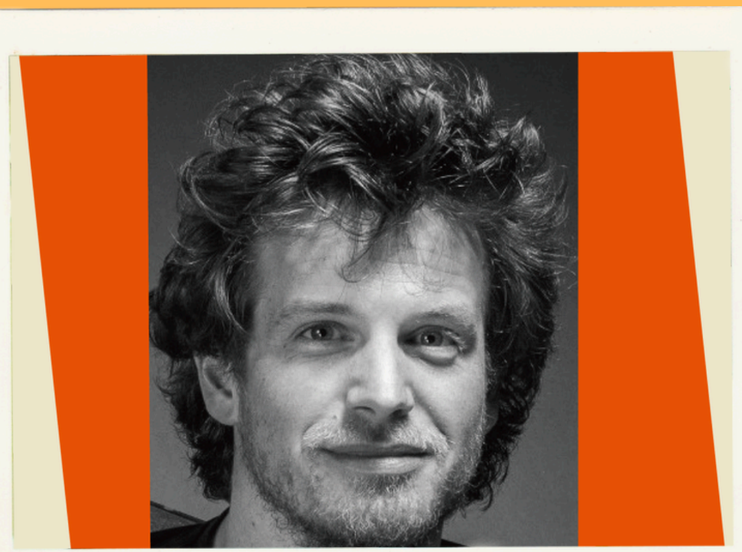
Meet Our Team

Anne-Laure Bourget - 타악기

안 로르 부르제는 세계적인 타악기 연주자이자 민족음악학자로, 전통 음악과 현대 음악을 아우르는 다채로운 타악기 연주로 명성을 얻고 있습니다. 현재 삼인동락그룹의 일원으로서 한국 전통 음악과 서양 음악의 융합을 탐구하며 타악기를 중심으로 한 독창적인 음악을 선보이고 있습니다.

또한 그녀는 프랑스의 유명 그룹인 Christine Salem과 협력하여 말라가시 및 크레올 전통 음악의 리듬과 정서를 담은 음악을 연주하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다양한 아티스트 및 음악 그룹과의 국제적인 프로젝트에 참여하며 독창적인 음악 세계를 지속적으로 확장해 나가고 있습니다.

안 로르 부르제는 연주 활동 외에도 민족음악학자로서의 깊이 있는 연구를 바탕으로 워크숍과 강연에 참여하며 활발히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녀는 전 세계의 음악 전통을 존중하고 현대적으로 재해석하며, 관객과의 교류에 깊은 열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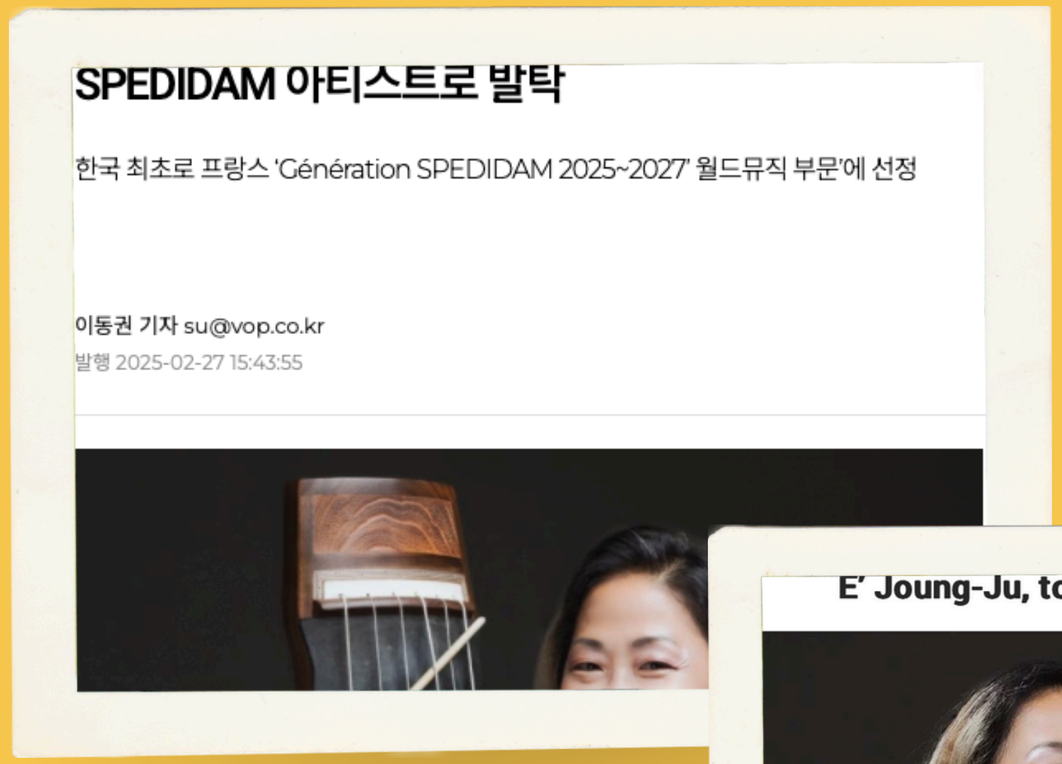
Jonathan MARCOZ- 음향감독

소다사운드는 파리 중심부에 위치한 녹음, 믹싱, 마스터링 스튜디오 및 돌비 애트모스 강당을 갖춘 프랑스 내 유일한 오디오 제작 단지입니다. 이곳의 전문가 팀은 혁신적인 접근 방식을 통해 시대를 초월한 맞춤형 오디오 결과물을 제공하며, 가장 야심 찬 음악 및 시청각 프로젝트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소다사운드는 프로덕션, 연출, 오리지널 작곡, 사운드 아이덴티티 및 감독을 포함한 광범위한 서비스를 제공하며, 매일 S의 상징적인 경험을 만들어가는 선구적이고 보편적인 방식을 사용합니다.

조나단 마르코즈 음향 감독은 Pure Capture 레이블을 설립하고 운영하며 전 세계 음악 녹음 및 배급에 기여했습니다. 그는 프랑스 사르조에 위치한 Peninsula 스튜디오의 책임자이며, Mike Clark, Alex Tassel, The Head Hunters 등 수많은 유명 아티스트들과 스튜디오 사운드 엔지니어로 협업했습니다. 또한 Michèle Fugain, Skip The Use 등과 라이브 사운드 엔지니어로 활동하며 광범위한 경험을 쌓았습니다.

그는 Red House Factory의 케이블링 설계 컨설턴트 및 장비 통합 책임자를 역임했으며, Sodasound(파리), Quai Son(페르테스), Studio O(파스칼 오비스포 / 파리), Maison des Artistes(앙드레 마누키앙 / 샤모니) 등 다양한 스튜디오와 음향 업체와 협력했습니다. 교육 분야에서는 Devenir Ingeson과의 파트너십을 통해 Pro Tools 전문 교육을 진행하며 지식을 공유하고 있으며, Avid Certified Expert Pro Tools Music 자격증과 사운드 엔지니어링을 전공한 BTS Audiovisuel 학위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는 Pro Tools, Cubase, Logic, Nuendo 등 다양한 소프트웨어에 능숙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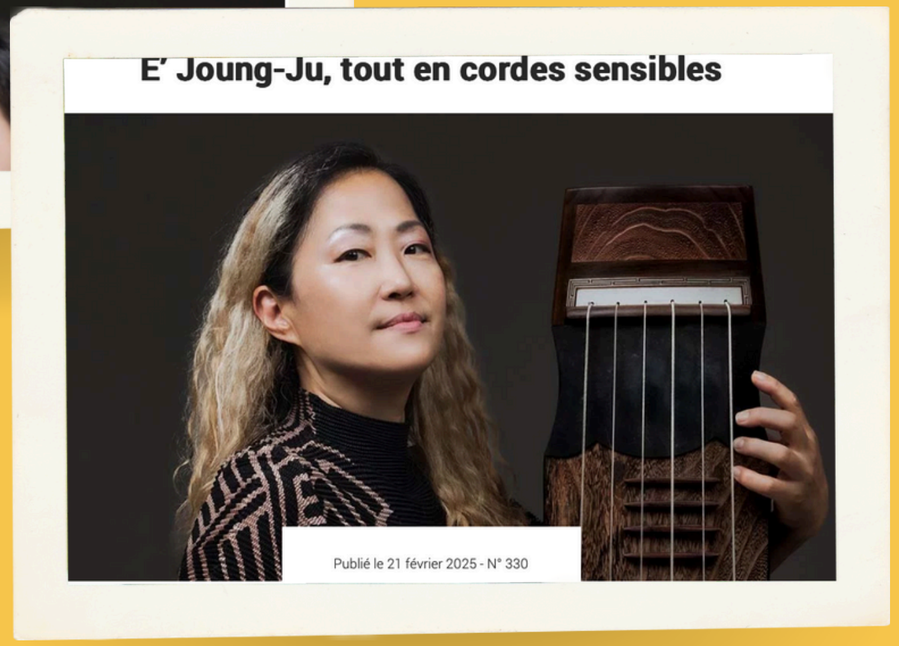
Samindongrak


SPEDIDAM 아티스트로 발탁

한국 최초로 프랑스 'Génération SPEDIDAM 2025~2027' 월드뮤직 부문'에 선정

이동권 기자 su@vop.co.kr

발행 2025-02-27 15:43:55


E' Joung-Ju, tout en cordes sensibles

Publié le 21 février 2025 - N° 330

삼인동락 음원 비디오

앨범 수록곡 3곡 미리듣기

삼인동락 영상보기

삼인동락 듀오 영상보기

라테라스 평론 기사

출연진

거문고 : 이정주 (Geomungo) E'Joung-Ju
콘트라베이스 : 시몽 마리 (Contrabass) Simon MARY
타악기 : 안느 러 뷰으제 (Anne-Laure Bourget)
음향감독 : 죠나탕 마코즈 (Sound Director) Jonathan MARCOZ

Our Crdeit

제작 | 한국의 봄 협회, Stéphane ANIZON
작곡 | 이정주 (LEE Jeoung Ju)
편곡 | 시몽 마리 (Simon Mary)
음향감독 | 조나탕 마코즈 (Jonathan Makose)
영상 감독 | Hugo LE BAILL
사진 | Rébecca / RBKRECORDS
첫 페이지 | 김용민화백

Samindongrak

Our Playlist

끊임없이 여행하는 자	— 7 : 44
너를 그리워해	— 4 : 13
하까마까	— 5 : 26
바람	— 3 : 41
새로운 하루	— 3 : 44
너의 미소	— 4 : 04
이상한 숲.	— 5 : 55
나와 함께	— 4 : 40
아리랑	— 6 : 11
출강	— 5 : 30
까치	— 4 : 20

삼인동락 무대 배치도 및 테크닉라이더

Samin Dong Rock

E'Joung-Ju : geomungo
Simon Mary : contrebasse Anne-Laure Bourget : percussions

FICHE TECHNIQUE SON (Janvier 2025)

L'organisateur doit fournir une sonorisation de qualité, ainsi qu'un technicien qualifié assurant l'installation et l'assistance technique. La régie son sera placée au centre et au 2/3 de la salle (éviter sous un balcon ou en hauteur)

Diffusion	Système professionnel actif de type C.Heil/Adamson
Console	Numerique Soundcraft Vi/ Yamaha CL / Midas serie Pro-M32
Effets	TC electronic 4000/ 6000 2 bainS de pieds 2 sides sur pieds
Retour	

Prévoir 3 points secteur (ampli basse, percussions, pédalier geomungo)

Accessoires à fournir : 1 tabouret de batterie / 1 pupitre / petit cube pour ampli bass / 1 ampli bass Gallien MB150

Patch de scène

IN	SOURCE	MIC	PIEDS
1	Geomungo	DI	
2	Contrebasse	DI	
3	Contrebasse	AKG 414 ou DPA 4060	PETIT
4	Percu (Daf)	M88 ou C535 ou SM57	PETIT
5	Percu (Dohola)	M88 ou SM57	PETIT
6	Micro annonce	SM 58	GRAND

Contact Management : Stéphane Anizon 06 63 73 40 11 printempscoreen@yahoo.fr
Contact Musicien : E Joung Ju 06 73 46 49 90 darojing@gmail.com

Plan de scène

Samindongrak

Our Future Project

삼인동락은 2026년에 음악, 영상, 레지던스, 축제 초청 등 다양한 국제 프로젝트를 통해 예술적 활동을 확장합니다. 4월 중순 프랑스 음반사 Label Ouest에서 새 앨범을 발매하며 활동을 시작하고, 씨네콘서트 영상음악 작업 및 거문고 '끝없는 여정'의 제2차 레지던스를 통해 새로운 사운드 연구를 발전시킬 예정입니다.

이후 4월 말부터 5월 초까지 프랑스 La Fabrique에서 한국 전통 가수와의 공동 레지던스를 진행하며 다문화적 협업을 모색합니다. 5월 말에는 파리 뮤제 기메에서 공연을 선보이고, 파리 공연장에서 음반 출시 쇼케이스를 이어가며 유럽 활동을 이어 갈 것입니다.

낭트 Le Lieu Unique 국립극장에서 새로운 프로젝트를 발표하고 낭트 여름축제 초청 공연으로 유럽 활동을 마무리한 뒤, 유럽 활동을 마친 후, 2026년 하반기에는 한국 투어를 진행하며 국내 팬들과 만날 예정입니다. 한국 주요 도시에서 신규 앨범 수록곡 및 새로운 협업 무대를 선보이며 국내 팬들에게 삼인동락의 예술적 진화를 직접 보여줄 것입니다.

01 Project 삼인동락음반출시

2026년 4월 중순 삼인동락 음반 출시
Label Ouest 프랑스
E'Joung-Ju
Samindongrak그룹
2026년 4월 1일 -2일 파리한국문화원 초청공연
2026년 5월 초 파리기메박물관 초청공연
2026년 6월 중순 음반 출시 기념공연 파리
2026년 7월 낭트 여름축제 공식초청공연

02 Project 26년 2월 23일 - 2월 27일 Carquefou 오디토리움 레지던스

씨네콘서트는 이종훈 LEE Jong-hoon 감독의 2022 <건축가 A> 애니메이션과 라이브 음악이 결합된 특별한 공연을 이어 감은 감독이 만든 2편의 에니메이션 영상과 함께 음악작업을 들어갑니다.

총 3편의 영상에니메이션에 대한 씨네콘서트 음악작업이 끝나면 프랑스 전문 씨네콘서트를 통해 유럽 투어준비

03 Project 26년 4월 23일 -5월 1일 La Fabrique chantenay 레지던스공간

프랑스
거문고: 이정주
콘트라베이스: 시몽 마리(Simon Mary)
중동 타악기 안느 러 뷰후제Anne Laur Boureg)
음향감독: 조나단 마코즈(Jonathan Marcoz)
한국
정가: 홍현수
소리: 거문고 병창·피아노: 박소연
[프로그램 특징]
전통 산조를 현대적 언어로 재해석한 창작 무대
거문고와 콘트라베이스의 협연, 전통 성악·연희·피아노가 결합한 다층적 구성 • 즉흥성과 변주, 동서양의 음악적 대화

04 Project 26년 한국 천연염색 박물관 패션쇼 음악 작업 프랑스 낭트에서 소개

삼인동락그룹과 젊은 일렉트로닉 연주를 접목하여,한국 천연염색박물관이 주관하는 패션쇼의 음악 작업

거문고: 이정주
콘트라베이스: 시몽 마리(Simon Mary)
중동 타악기 : 안느 러 브후제(Anne Laur Boureg)
일렉트로닉 연주자 :
음향감독: 조나단 마코즈(Jonathan Marcoz)

Our Vision

Vision 01 예술적 목표 및 독창성 강조

삼인동락의 비전은 거문고, 콘트라베이스, 중동 타악기라는 독특한 조합을 통해 동서양의 음악적 경계를 허물고 새로운 차원의 예술적 경험을 창조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전통 악기의 깊은 정서와 현대 악기의 확장된 표현력을 융합하여, 시대를 초월하는 보편적인 아름다움을 탐구하며 음악적 혁신을 추구합니다. 궁극적으로 삼인동락은 독창적인 사운드를 통해 새로운 장르를 개척하고, 음악을 통한 문화 교류의 가능성을 넓히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Vision 02 청중 경험 및 사회적 영향력 강조

삼인동락의 음악이 청중에게 깊은 울림과 영감을 선사하는 강력한 매개체가 되기를 꿈꿉니다. 거문고의 명상적인 선율, 콘트라베이스의 안정적인 조화, 중동 타악기의 생동감 넘치는 리듬이 어우러져 청중의 마음속에 다채로운 감정의 풍경을 그려낼 것입니다. 우리의 비전은 단순히 아름다운 음악을 연주하는 것을 넘어, 음악을 통해 문화적 다양성을 존중하고 공감대를 형성하며, 현대 사회에 긍정적인 메시지와 희망을 전달하는 데 기여하는 것입니다.

Samindongrak

Our Mission

Mission 01
한국과 프랑스를 잇는 다리 만들기

음악·공연·예술 전반에 걸쳐 두 나라가 자연스럽게 이어지는 교류의 장을 만들고, 서로의 감성과 전통을 함께 나누며 확장시킨다.

Mission 02
양국 아티스트를 위한 레지던스

예술가들이 한국과 프랑스에서 머물며 창작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고, 현지 문화와 사람들을 깊게 경험하며 새로운 작품이 태어나는 흐름을 돕는다.

Mission 03
새로운 형식과 실험을 두려워하지 않는 창작 집단

전통과 현대를 넘나들며 다양한 시도, 예술적 모험을 이어가고, 장르의 경계를 뛰어넘는 퍼포먼스를 통해 삼인동락만의 세계를 확장한다.

Mission 04
이미지·사운드·몸짓 등 다양한 매체의 콜라보레이션

영상, 설치, 사진, 무대미술 등 여러 예술 분야와 협업하여 한층 풍부한 시각적·청각적 경험을 창조하고, 관객에게 새로운 감각의 공연을 선물한다.

Contact Us

Stéphane Anizon
Chargé de production et de programmation
Association Printemps Coréen / 한국의 봄 비영리 협회
11, rue de Tchécoslovaquie / 44000 Nantes / France
+33 (0)6 95 52 60 54

+33-0673464990

www.ejoungju.com

darojing@gmail.com
printempscoreen@yahoo.fr

11, rue de Tchécoslovaquie / 44000
Nantes / France